

## 진열장 바깥에서

조각상이 말문을 닫은 박물관에  
가족 가방이 옆질러진다  
유물보다 오래된 우산을 펴고  
낯선 비를 목욕처럼 받는다

기념품은 고르지 않고  
사진이 잘 나왔는지만 확인하고  
지도 없이 하루를  
접는다

밤마다  
가족은 손바닥처럼  
접힌다, 작은 호텔 침대 위  
붉은 등이 깜박인다

## 공항에서 울지 않는 방법

버스를 세 번 갈아탔다  
한 번도 길을 묻지 않았다  
지도는 뒷주머니에 접혀 있었고  
기억은 카드 영수증에만

대만에서 나는  
낯선 말로 길을 잃지 않았다  
다만  
당신의 발이 아프다는 말에  
조용히 약국을 찾았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귀국편 시간은 외워두었다

입맛은 시차를 타지 않는다

다리가 아픈데

또 줄을 섰다

버블티 한 모금에

단맛이 지나치게 와서

잠이 더 깼다

굴전은 마지막이었다

기름 냄새가

생각보다 좋았고

아무도 말이 없었다

딤섬은 나왔다가 그대로 식었다

나는

어쩐지 마음이 놓였다

맛있지 않아서

안심이 되는 여행도 있다

그래야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버스 안의 석양은 늘 출발하지 않는다

기억은 늘 출발 직전의 버스에 남고  
창밖으로 빗금 같은 말들이 흐르고  
풍경은 멀어지는 속도는 익숙하지 않지

대만은  
사진 속에 갇힌 나라가 아니야  
그건  
버스를 놓친 후의  
정류장 의자에만 있었지

나는 아직  
그 석양 아래 있고  
그 버스는 지금도  
출발하지 않고

## 하얀 벽지

한방병원 칙칙한 복도는 벽지가 늘 말이 없었다

바느질 자국처럼

이음새만 조용히 튀어

나와 있었다

아이는 과일을 깎았고

더 어린 아이는 말없이 티슈를 찾았다

나는 그 틈에서

몸이 아닌 시간을 낚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매일 같은 그림자가 걸어 나와도

퇴원이라는 단어는

접수처에만 있었다

## 회복실의 창문은 열리지 않는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나는 창가 의자에 앉았다

창문은

잠겨 있었다

아이는 과일을 잘게 잘랐고

나는 물컵을 바꿨다

낮에는 채널을 돌렸고

밤에는

전등을 껐다

의사는 회복 중이라고 말했다

엄마는 괜찮다고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병실엔

바람이 들지 않았다

나는

나는

나는 하루 종일 창문만 봤다

## 진단명 없음

엄마가 입원한 날

카카오톡에는 아무 말도 없었다

가족 단체방에

진단명도 증상도 없이

잘 있다는 말만 올라왔다

나는 쿨을 까면서

하얀 속껍질을 잘 떼었다

모양 좋게 접시에 담았다

그게 도움이 된다고 믿었다

정작 엄마는 그날

쿨을 먹지 않았다

## 통증이 없는 방

가장 아팠던 날의 기억은 대개 희미하다

통증은 너무 명확하여

기억에 남지 않는다

병실에는 통증이 없다

그건 낫기 시작했다는 뜻이 아니었다

창밖의 나무는 하루가 다르게 꽃을 피웠고

건강해지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 말엔

병이 있다는 사실이 들어 있어서



## 연어장을 담그는 저녁

연어를 썰다가 아이가 들어왔다

오늘은 초밥 대신

장에 담기로 했다

간장이 천천히

흐르고

마지막 통깨가 떨어져

그릇을 덮을 때

아이 아빠는 조용히 물을 끓였다

사진에 사람이 없어서

오늘 저녁은 아무도

속상하지 않았다

## 뒤집개

줄이 짧은 가게 앞

나는 가장 조용한 요리를 고른다

굴전은

바삭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소스는 따로 달라고 한다

기름 냄새는

치워지지 않는다

야시장 골목에 기름이 튀길 때

아이들이 줄을 서고 굴전이 한 번 더

뒤집힐 때

맛있다는 말은 항상 늦게 도착한다

우리는

이미 다 먹은 뒤였다

맛없다는 말

딴심이 나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맛있다고 말하지 않아도

계속 먹게 되는 음식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이라고 불렀다

식욕은 입에서 멀어질수록 선명하다

끓주림은 냉장고 속에 없다

나는 한 번도

허기져서 먹은 적이 없다

기억은

씹히지 않았다

누군가 먹던 것을 바라보는 일이

어쩌면 가장 오래 남는다

버블티의 빨대가 꺾인 채

테이블 위에 굴러다닐 때

처럼

나는 늘

식탁의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안 부른 젓가락처럼

아무 데도 닿지 않는

## 눈이 내리고 있던 선자령

그날은 3월이었지만

눈은 멈추지 않았다

바람은 풍차를 돌리고

우리 셋

아이 아빠는 앞서 걸었고

나는 눈길을 골라 밟았다

아이는 뒤에서 사진을 찍었고

우리는 흰 풍경이었다

서로의 색을 잃은 채

같은 방향으로 걸었다

## 지도에 없는 골목

지도엔 없었다 그 골목의 붉은 등은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딱 한 번씩  
흔들렸다

아이 엄마는 천천히 걷고  
아이는 향 냄새를 따라갔다  
나는  
무언가를 외우듯  
가게 간판을 읽었다

풍경은 사진  
사진은 기억  
기억은

.

## 사진 속 찻집

찻집

센과 치히로

비현실

붉은

종이등

그날 나는

딱히 차가 마시고 싶진 않았고

딱히 센과 치히로가 떠오르지는 않았고 센의

진짜 이름이 궁금하지 않았고

사진만

잘 나오면 되었다

엄마는 내가 찍히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풍경 속이라면

괜찮아한다

풍경은 늘 멀리 있다

풍경은 언제나

눈앞에 없다

늘 조금은 멀리 있고

조금은 흐릿하다

차창 밖의 산맥

사진 속 바다

골목 끝의 불빛

기억엔 모두

한 걸음쯤 멀다

가까이 오면

풍경은

사라진다 그건

사람과 닮았다



## 한 방 안의 셋

낮선 호텔 침대 위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말없이 TV를 켜고

초콜릿을 까고

다 같이

한 입도 먹지 않았다

가족은

같은 방에 있을 때 가장 멀다

그날 밤

불을 끄고 나서야

서로의 숨소리가 제일 가까웠다

## 조용한 사람

엄마가 창가에 앉고

아이는 커피를 시킬 때

나는 사람들을 바라본다

모두 말이 없었다

그날은 곧지암이었다

눈이 많이 왔고

스키장은 붐볐고

우리는

카페에 오래 앉아 있었다

가족은

때로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함께 있는 사람들

단체방은 조용했다

엄마가 수술을 받았다

아빠는 병원에 있었고

나는

아무 말도 없었다

그날 사진을 찍었다

병실 앞 의자

접힌 담요

굴 세 알

.

## 동심원

가족은

항상 가운데가 비어 있다

누가 중심이었는지

아무도 묻지 않는다

엄마는 가끔 벗어나 있고

아빠는 안쪽으로 숨고

언니는 밖에서

문을 닫고 들어온다

나는

그 자리를 늘 비워둔다

가족은

비어 있는 쪽에서부터 서로를 안다